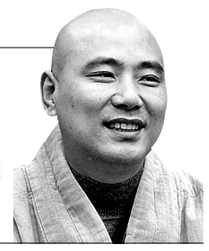
| 불자 세상보기 |

붓다 가르침대로 살면 '웰빙'



선업 스님
불교상담개발원 연구위원

13개국 웰빙지수 조사 결과
한국 최하위, 작년보다 악화
정치 · 경제적 불확실성 높아져

붓다 설한 〈행복경〉 살피면
웰빙 현대적 요인 찾기 가능

술 절제 · 善緣 · 가족 사랑 등이
스스로 웰빙할 수 있는 요인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아가면
무한 웰빙 세상 누리게 될 것

한국인의 삶의 질을 측정한 '웰빙 지수'가 1년 전 보다 낮아지고 아시아 태평양지역 13개 주요 국가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하여 충격을 주고 있다.

글로벌 헬스서비스기업 시그나 그룹이 발표한 '시그나360°웰빙지수'는 개인의 전반적인 건강과 웰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동기, 인식, 태도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관찰하기 위해 만든 최초의 연간지수로 주요 아시아 · 태평양 지역과 유럽국가 13개국 만 25세 이상 성인 1만4,000명(한국 1,005명)을 대상으로 '건강과 웰빙' 전반에 대한 인식을 알 수 있도록 구조화 된 독립적인 연구조사이다.

올해로 세 번째 시행된 이번 조사 결과, 한국인의 웰빙 지수는 53.9점으로 세계 평균 62.3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체건강, 사회관계, 가족, 재정상황, 직장 관련 건강 및 복지 등으로 구성된 설문항목 모든 부문에서 하락해 한국인들이 예년에 비해 더 팍팍한 삶을 살았음을 보여준다.

이런 결과에 대한 원인으로 정치적 경제적 불확실성이 지목되고 있기에 대한민국 국민들의 웰빙지수 향상에 대한 관계기관의 관심과 고민은 더욱 깊어질 수 밖에 없을 것 같다.

이런 상황을 예견이나 한 듯 붓다는 웰빙 즉 행복하게 잘 사는 법에 대해 38가지로 정리하여 제시하고 있다. 그 비법을 담은 〈행복경〉 내용에는 웰빙의 현대적 요인 5가지가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먼저 '신체건강'의 비결에 대해 "술을 절제하고", 몸을 잘 다스리면 된다고 권하고 있다. 성인 인구 증가율 보다 주류 출고량이 더 가파르게 오른 한국의 현실을 꿰뚫어 본 듯하다.

다음으로 '가족'에 관하여 "부모를 섬기고, 가족을 사랑하고 아껴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제시된다. 가족과의 심리적 관계 형성이 행복의 기본 조건이라는 것이다.

세 번째인 '사회관계' 항목에는 "어리석은 자들을 가까이하지 말고 슬기롭고 현명한 사람들과 친교를 맺고 그리고 존경받을 만한 사람들을 공경하고" 사는 것이 행복의 비결로 등장한다. 각종 사기 사건 등을 비롯하여 사회문제의 원인이 부적절한 관계에서 오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네 번째인 '재정상황'에 관하여는 "분수에 알맞은 곳에 살고", "형편 따라 남을 도우며" 사는 것이 경제적으로 무리가 따르지 않고 행복하게 사는 방법으로 제시된다.

웰빙지수에 보면 한국은 특히 재정 분야에서 전 연령대가 부정적 답변을 내놓고 있다. 은퇴 후 재정지표(43.5점)에서도 조사국 중 한국은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집을 장만하고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고 나이가 들수록 체면치레로 과한 지출을 권하는 사회적 시스템에 적응하는 비결이 '알맞게 도우며' 사는 것이다.

다섯 번째인 '직장관련 건강 및 복지'에 대하여 붓다는 "세상살이에 뒤섞일 때조차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슬픔과 티끌로부터 벗어나서 안정돼 있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직장에서의 심리적 안정감이 웰빙의 요인임을 간파한 말씀이다.

더불어 〈행복경〉에는 궁극적 웰빙인 최상의 행복, 출세간적 행복 즉 열반의 행복도 언급되어 있다.

따라서 붓다의 지침대로 살다보면 세속적 웰빙 지수와 무관한 최상의 행복 세계인 열반의 세상이 지금 이 곳에서 펼쳐져 더 이상 지수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무한 웰빙 세상을 누리고 살게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기자칼럼
박아름 취재부 기자

사찰 축제에 '푸드트럭 주의보'

"절에서 스테이크 판다. 오늘 전부 고기차ㅋㅋ"
"절에서 고기를… 너무 잔인한 거 아냐?"

최근 경기 A사찰서 열린 축제가 SNS상에서 입방아에 올랐다. 축제는 성황리에 마무리 됐지만, 현장서 판매된 '푸드트럭'의 메뉴가 화근이 된 것. 당일 A사찰 축제에서는 스테이크 · 곱창 등 육류가 판매됐고, 축제가 끝난 후 일부 참가자들이 SNS에 사진을 올리며 문제가 불거졌다.

A사찰 주지 스님에게 직접 확인한 결과, 육류가 판매된 것은 사실이었다. 스님은 "사전에 푸드트럭 업체 측에 비빔밥 · 국수 등 사찰 환경에 맞는 음식을 준비해달라고 말했다. 그런데 행사 당일 5대 푸드트럭 중 일부 육류 메뉴가 들어와 해당 푸드트럭만 빠질 것을 요청했으나, 업체 측에서 '5대 모두 빠지겠다'고 말해 어쩔 수 없이 육류도 판매했다"고 밝혔다.

또 스님은 "경내가 아닌 주차장에 푸드트럭을 배치했다"면서 "다음부터는 철저히 육류 판매를 금지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전후 관계를 따져보니 사찰 측의 난감한 입장도 이해가 됐다. 이전 축제에서는 푸드트럭을 활용해 본 적 없었고, 당일 푸드트럭이 모두 철수할 경우 행사 진행이 원활치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경내였던 주차장이었던 사찰 행사에서 육류가 판매된 것은 따끔한 질책을 받아 마땅한 일. 산사의 청량함을 기대하며 A사찰을 찾았을 일반인에게도, 또 불살생(不殺生)을 미덕으로 알며 A사찰서 수행해왔을 불자들에게도 종교인이자 종교시설로서

A사찰 축제에 육류 푸드트럭 '물의'
푸드트럭 부를 시 품목확인 철저해야

좋은 본보기가 되어주지 못한 사실은 변함없다.

불교에서는 오계(五戒)에 따라 육식을 삼가해왔다. 수행자 또한 죽임을 당한 동물을 섭취하는 것은 몸에도 이롭지 않다고 하여 육식을 하지 않는다. 특히 불교는 생명존중사상을 주창하는 종교가 아니던가. 이 때문에 '대놓고' 육류를 섭취하거나 판매하는 것이 썩 좋은 인상으로 남진 않는다.

먹을거리가 축제의 큰 재미요소인 만큼 요즘 푸드트럭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최근에는 푸드트럭들만 모아 '먹방 축제'를 벌이는 일도 많다. 한 곳에서 여러 음식을 취향에 따라 즐길 수 있고, 축제도 즐기며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젊은 층을 중심으로 성행하기 시작했다.

그러다 보니 젊은 층을 유치하려는 요즘 불교계 축제에도 푸드트럭이 심심치 않게 등장한다. 특히 꽃 · 풍등 · 세시풍속 축제 등 불자 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많이 찾는 사찰 축제에서 더욱 인기가 좋다. 하지만 A사찰의 사례에서 보듯 무분별한 유치는 '다된 밥에 재 뿌리는 격'과 다름없다. 여법하게 치러진 사찰 축제에 오점으로 남을 수 있다는 뜻이다.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모든 일이 수월하다고 했다. 사찰 축제에 푸드트럭이 도입된 지 얼마 안 된 만큼 선례를 잘 남겨야 다시는 사찰에서 고기 냄새와 연기가 새는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젊은 층 포교도, 일반인에 절 문턱을 낮추는 것도 다 좋지만 불교 본연의 가치를 잃어선 안 될 일이다.

社說

신임 태고종 총무원장 선출에 부쳐

한국불교의 대표종단 중 하나인 태고종이 새 수장으로 편백운 스님을 선출했다. 편백운 스님은 7월 13일 진행된 제26대 태고종 총무원장 선거에서 143명의 선거인단 중 139명이 참석한 가운데 59표로 당선됐다.

이번 총무원장 선거를 앞두고 태고종 내부에서는 종단 위기 상황에 대한 종도들의 우려가 높았다. 위기의 근원은 바로 부채 문제였다. 총무원장 선거 직전 직선제 도입 추진도 이런 부채 문제 해결의 일환으로 의무금 납부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란 말이 나오기도 했다. 편백운 스님의 당선 일성이 부채문제 해결인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일이기도 하다. 태고종은 이밖에도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조계종과의 선암사 소유권 분쟁 해결을 비롯해, 지난 종권들에서 비롯된 종단 내 갈등해소, 대외 위상 회복 등이 그것이다.

이같은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 태고종도들의 화합이 우선돼야 하며, 중심에서 총무원장인 편백운 스님의 리더십이 발휘돼야 할 것이다. 편백운 스님은 2위 후보와 3표 차이로 당선된 만큼 또 다른 리더십이 요구된다. 스님이 직접 밝혔듯, 대사면과 능력 위주 인선 등의 조치가 기대되는 부분이다.

사회에서는 아직도 종교계, 특히 불교계가 많은 국민들의 어려움을 다독이는 행보를 걷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제는 불교계가 부처님 가르침을 바탕으로 화합해 사회 속으로 나아가야 한다.

'연은 순풍이 아니라 역풍에 가장 높이 난다'는 말이 있다. 혼란을 도약의 기회로 삼아, 한걸음 앞으로 나아갈 때 태고종은 한국불교 대표종단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할 수 있을 것이다. 태고종 편백운 호에 새로운 순풍이 불기를 기원한다.

금강대, 발전 위한 결단 내려야

천태종립 금강대에 내홍이 일어났다는 소식이 들린다. 현 총장이 인사를 전횡하고, 직원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을 해왔다는 것이다. 이에 학교 교직원들이 총장 퇴진을 요구하고 나섰다고 한다. 호소문은 물론 학교 곳곳에 총장 퇴진 현수막들이 걸렸다.

한때 금강대는 불교 종립대학 중 가장 주목받던 곳이었다. 재학생 전원에게 장학금을 수여하는 등 파격적인 혜택을 줬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들리는 소식은 그렇지 못하다. 지난 2년간의 대학평가서 금강대는 D+와 D등급을 연속으로 받았다. 이를 수습해야 할 책임자인 총장이 나서서 해당 직무와는 동 떨어지는 사람을 채용했다. 교직원 노조 측은 "총장이 인사위원들에게 점수를 고쳐 특정지원자를 뽑을 것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총장은 인사위원회 평가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재청권자이고 협조를 구한 것이지 강요는 아니었다고 했다. 하지만, 학교 발전을 위해 능력있는 인사 채용이 이뤄져야 하는 상황에서 비전문가를 추천을 통해 받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다.

여기에 본지가 확인한 직원들을 향한 총장의 폭언들은 차마 지면에 게재하기도 민망한 수준이다. 시정잡배나 쓸 법한 욕설과 막말은 대학 총장이 행했다는 게 개탄스럽기만 한다.

관리 감독을 해야 할 천태종단도 책임이 있다. 학교를 창립한 이상 학생들이 좋은 환경에 공부하고 교직원들이 학교 발전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지원 · 감독해야 한다. 그럼에도 종의회 차원에서 아직 사정청취만 하고 있는 상황이다. 천태종도 금강대도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우를 범하지 말고, 발전을 위한 결단을 내리길 바란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발행인 : 혜원 편집인 : 혜도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하기책자 5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命 (명) 글쓴이 : 혜천법사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 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20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전생의 빚을 소멸시켜 자신의 운명을 바뀌게 하는"

생전예수재기도의 중요성과 그 성취효과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생전예수재는 "왜" 필히 지내야만 하는가?
② 생전예수재 신청 및 집에서 기도하는 방법
③ 생전예수재 기도후 일어난 영험사례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 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768-8413

좋은인연 대출 안 내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립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기본5년
- 근저당설정비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단체명의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전무 이강욱 ☎ 010-9842-4200
부장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